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불법스팸, 이제 쉽게 돈 못 번다

28개 성인스팸 사업자에 과금서비스 제한 조치 시행

이동통신사의 무선망 개방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 무선 인터넷 접속유도 스팸(URL-SMS)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지난 달21일 불법 URL-SMS 스팸을 전송한 28개 컨텐츠 사업자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008년 3월 22일 시행)에 따라 이통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사업자 스스로가 조치한 것으로, 관련 기관이 자정노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조치를 당한 28개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선 인터넷 성인화보나 채팅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업체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이용정지(10개 업체) 또는 계약해지(18개 업체)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KISA 스팸대응팀 임재명 팀장은 “자율적인 과금서비스 제한 조치는 향후 음성정보서비스(060) 등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건전한 무선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인식 분야에서 산학이 손잡다

KISA, 12일 연세대학교와 바이오인식 연구협력 협약

KISA 바이오인식시험센터를 관장하는 보안성평가단이 지난 12일 연세대학교 생체인식연구센터와 바이오인식 기술 관련 연구협력 및 인력활용, 정보교류 등에 대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ISA 바이오인식시험센터와 연세대 생체인식연구센터 간에 바이오인식 분야의 연구협력 및 기술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바이오인식 시험평가 분야의 학술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협력분야로는 ▶바이오인식 기술 관련 정보교환, ▶바이오인식 연구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 ▶바이오인식 시험평가 관련 연구협력이 있으며, 양 기관은 바이오인식 시험평가 분야의 연구과제를 함께 도출해 그 수행을 상호 위탁하거나, 정부 연구사업을 위한 산학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된다.



연세대와의 바이오인식 연구협력 협약식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 보급 활발

보급 10일 만에 100여개 웹 사이트 신청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가 보급된 지 약 10일 만에 신청 기업이 100여 개를 넘어섰으며, 특히 이들 중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위 안에 속하는 기업도 6개가 포함되는 등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웹 사이트일수록 소프트웨어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워드는 다른 인증방식에 비해 적은 시스템 구축비용과 이용자 편의성 등의 이유로 웹 사이트 이용자 인증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저조해 패스워드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KISA는 국내 주요 웹 사이트 패스워드 이용현황을 조사해 패스워드 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지난 5월부터 사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KISA는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에도 보다 많은 웹 사이트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응용팀 전길수 팀장은 "전문 인력이 없어 소프트웨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에게는 기술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보다 많은 웹사이트에 이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방안 논의되다

아시아 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OECD 장관회의 연계행사 중 하나로 '제29차 아시아 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 KISA 공동주관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 아셈홀 201호에서 개최된다.

'인터넷 신뢰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호주, 뉴질랜드, 홍콩, 캐나다, 한국 등 회원국 커미셔너(개인정보보호 감독관) 및 국내외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예정. 행사 첫날 열리는 Broader Meeting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기술, 기업동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OECD 사무국장 마이클 도노후가 참석해 'OECD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업 적용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최고기술경영자인 올리버 벨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전략을 발표한다.

한편, 커미셔너만 참여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둘째날 Closed Meeting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제도, 개인정보 인식주간 공동행사 등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협력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부터 포럼에 참여해 온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주관을 계기로, 향후 인터넷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